

예다 새난

사랑을 아직 난 몰라서 더는 가까이 못가요
근데 왜 자꾸만 못난 내 심장은 두근거리나요

난 당신이 자꾸만 밟혀서 그냥 갈수도 없네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 사랑에 내 맘이 너무 아파요

하루가 가고 밤이 오면 난 온통 당신 생각뿐이죠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마음이 사랑을 따르니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 사랑에 내 맘이 너무 아파요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롭 두비루비롭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롭 두비루비롭

하루가 가고 밤이 오면 난 온통 당신 생각뿐이죠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아픔이 무뎌져 버릴 날이 언제쯤 내게 오긴 할까요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날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달빛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갈수가 없네요
당신 곁에 잠시 누워 있을게요 잠시만 아주 잠시만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롭 두비루비롭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롭 두비루비롭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롭 두비루비롭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롭 두비루비롭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롭 두비루비롭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루랍파 두비루비롭 두비루비롭 두비루비루랍파